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12.18.(목) 오후 2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이경희,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연합뉴스TV 제8기 시청자위원회가 선정한 '2025 시청자위원회상' 시상식 개최

제8기 시청자위원회는 정치부 윤솔 기자를 2025년 시청자위원회상 수상자로 선정, 금일 시상식을 가졌음. 2022년 처음 이상을 제정했고 제8기 시청자위원회들은 그간 출중한 취재활동을 벌인 윤솔 기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함. 시청자위원회는 윤솔 기자가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보도와 밸로 뛰는 취재를 통해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특히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국회도서관 AI의 독도 영유권 관련 답변 실패 등 사회적 이슈를 예리하게 파헤친 다수의 단독 취재가 돋보였음. 감사의 뜻을 담아 이상을 드린다고 평가했음.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년 11월 3일(토) 뉴스투나잇, '운항 재개 이틀 만에 6천명 탑승...아직은 관광객만 북적'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의 이용객 수 차이를 직접 비교하며, 한강버스가 현재 어떤 이용 패턴을 보이는지 현장감 있게 설명했으며, 특히 선착장의 분위기, 관광객 인터뷰 등을 포함해 시민체감형 보도를 구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향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정책 변화를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한 점도 유익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으며 시스템 개선 노력은 다했다고 본다. 하지만 출근길 교통수단으로의 한계를 언급하였으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성 문제 등 교통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한계 분석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아쉬웠으며, 실제 이용객 패턴의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전문가 분석도 병행됐다면 더욱 신뢰도와 완성도가 제고됐을 거라고 본다.

정리하자면 본 보도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 초기의 이용 패턴과 시민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현장성을 확보한 보도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 보완 사항을 언급해 향후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 기여했다. 다만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자료, 안전성 정보, 전문가 분석이 보강된다면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깊이를 갖춘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아직은 출근시간대 운영까지 본격화한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 운행이 본격화할 때쯤 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관련 보도에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여 다뤄보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홈페이지 개선 필요...뉴스 찾기 다소 불편, 시각 효과 떨어져>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YTN과 비교할 때 정보와 시각효과가 취약합니다. 최소한 검색창은 메인 화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검색창은 메인 화면에 있지만, 연합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겨냥해 만들어져 있어 병렬 정보 방식이 아니라 직렬 배열 방식이어서 정보 제공이 취약해 보입니다.

특히 YTN은 뉴스 피드 기능을 삽입해서 '뉴스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연합뉴스TV는 뉴스만 나열함으로써 추가 클릭 유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인 창인데 메인 뉴스의 영상도 불편하게 가로로 길쭉한 상황입니다.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가 지난 6월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지금은 개선 해놓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우선, 검색창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식으로 돼 있던 거를 병렬식으로 다 바꿔었어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은 YTN하고 홈페이지가 사실상 똑같은 형태입니다. 또 뉴스피드도 광고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인기 기사와 최근 AI뉴스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장현 시청자센터장

혹시 컴퓨터나 모바일에 있는 쿠키 값이 과거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과거인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키 값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지금의 개편된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증가하는 청소년도박 기사를 시청하면서 (11.24 오후 5시 15분 뉴스워치)

티비화면 상단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2025년 11월 1일 ~ 12월 31일) 자막을 보면서 청소년도박 관련 홍보 영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경찰청 조사자료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경찰청(2024.11~2025.10)은 1년간 5196명을 검거하였고, 청소년도박행위자로 7153명을 적발, 그중 417명을 혐의자로 입건하였다(뉴스센터 12시 21분). 그중 100명은 청소년운영자였고, 판돈 규모는 500만원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어 유형별로는 카지노형(27.2%), 스포츠토토(16.6%), 경마 경륜 경정(8.6%)입니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및 학부모동의를 얻어 상담기관과 연계, 사이버도박예방교육 등 재범방지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과거 사이버도박의 위험을 인지한 우리 단체에서는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활동 당시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도박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처 등의 구조로 늘 같은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껏 해왔던 보도 방식의 반복, 보도내용의 동일성 등은 아쉬움을 남겨 주었습니다. 현장활동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도박행동은 사행성을 담은 온라인게임과 무관하지 않았고, 합법도박사이트가 오히려 중독을 만들어낸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있었고, 도박사이트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진신고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 만큼 추후 보도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재발방지조치의 핵심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검거된 청소년운영자 면담, 문제가정의 부모 면담 등을 통해 도박접근 통로, 상담기관의 효과성 여부, 청소년접속불가 관련 기술적조치현황 등 각종 제도의 장단점 소개, 정책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실질적인 대안제시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사이버 도박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경찰청 자료를 단순 통계 형태로 쓰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 사례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반영된 기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404회 :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 특히 수돗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로서의 수돗물 보급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에 이번 방송을 상당히 관심이 있고 흥미 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수돗물의 관리 기준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돗물을 피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수돗물의 음용률이 10% 이내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원인이 수질보다는 노후배관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후속보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공백 메울까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이슈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의사제'는 피할 수가 없는 정책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스페셜은 PD들이 만드는 제작물입니다. 한 20분 정도의 좀 짧은 제작물이긴 하지만 저희 PD들이 매번 심혈을 기울여서 다큐를 만들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수돗물을 다뤄보고 상당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노후배관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미국에 있을 때는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다 수돗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은 다 사 먹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하겠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은 기자들 리포트 위주로 만든 제작물입니다. 이번에 지역 의사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 뉴스와 관련한 아이템으로 염두에 두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피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소비자단체)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게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접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의도적으로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본다고 하며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약 7개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며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로 진행하다가 다시 PC로 돌아가야 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AI시대를 맞이하여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와 보안시스템 고도화 등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 기업 내 책임 경영의 자세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예측되는 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책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향후 연합뉴스TV에서도 이제는 공공재가 된듯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심층 취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도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기획 리포트 등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찾아라! 성공 레시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김의 성공 비법은?

김 이름의 유래가 조선 인조에게 진상한 광양 태인도에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을 한 김여익(1606-1660)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 112개국으로 국내산 조미김이 수출되고 있으며, 해남에서 발견한 국내 최장 김 패널이 2m 45cm라는 사실 등 김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게 돼서 매우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전국 김 가공공장 325 곳 중 251곳(77%)가 전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4~5년 전까지만 해도 전복이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김이 전남의 대표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

다는 사실 또한 관심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전국 김 수출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그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우수한 품질의 신규 김 품종 개발과 김의 성장을 방해하는 파래와 규조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김 활성처리제 개발 등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 관계자들의 인터뷰까지 보면서 전라남도 김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루묵처럼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거나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품에 대해 시리즈로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가 '찾아라 성공 레시피'라는 코너는 기업 소개 제작물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중소기업들 중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일종의 요리 레시피를 알듯이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직접 취재해서 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K-김이 반도체 못지 않게 한국 대표적인 음식으로 지금 소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러면 김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재밌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칭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서연 위원

- 임윤찬 공연 중 유튜브 영상 소리가?...얼마나 심했는지 감도 안 오는 최악의 '관크' 연말연시를 맞아 공연 관람이 늘어나고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으로 공연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예민함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기본 예절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공연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클래식 공연 문화가 일찍 발달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여, 관람 예절을 엄격하게 지키고 아티스트를 존중하는지 비교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방송사들이 트로트나 발라드 등 대중음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합뉴스TV가 클래식 뮤직 및 공연 예술 문화 전반에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채널의 품격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박에 재반박...극한으로 치닫는 '레이더 조준' 진실공방

현재 국제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 쟁점과 그 경과를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복잡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다만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현장의재구성] 상처 입은 루브르...그런데 웃는 이들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했던 도난 사건을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광고 분야에서 어떻게 해학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어 흥미롭고 신선한 기획이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임윤찬 공연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공연장에서 유튜브 영상 재생소리가 나오, 벨소리가 나고 해서 문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뷰가 100만 뷰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12월 23일 날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식이

나 뮤지컬 이런 분야에서 저희 연합뉴스TV가 매년 공연도 주최하고 해서 기여하는 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을 좀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 레이더 조준 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 안보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 '현장의재구성' 루브르 박물관은 저도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한 1500억 어치의 왕실 보물이 대낮에 털린 건데, 터는 과정이랑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코미디 같은 영화 소재가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가볍게 터치하면서 또 시청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 구성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경제읽기] 쿠팡 사태 엿새째...곳곳서 피해 호소 '속출' 2025-12-4

지난 11월 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의 몇가지 문제점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셔서 숙지하기가 쉬웠습니다.

2차 피해 예방법으로는 1.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2.결제 비밀번호 변경, 3.쿠팡 탈퇴 고려, 4.해외결제 방어 설정, 5.본인도 모르는 결제 승인 문자가 오면 신용카드 회사나 신용 금융기관에 바로 신고, 쿠팡 가입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가입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쿠팡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우리나라 청문회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참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읽기를 비롯해 변호사 대담 등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왔습니다. 경제읽기에서는 소비자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쿠팡 사태는 끝난 게 아닌만큼, 계속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 [뉴스초점] 갑질·조폭 연루설·소년범 의혹 논란...연예계 '뒤숭숭'

먼저 12월 6일자 「뉴스초점」에서는 최근 연예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했던 시의성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각 사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형사·민사상 쟁점과 관련 법률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됩니다. 전문가 구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식 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문화평론가로서 연예계 이슈의 배경과 여론 반응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소년범·소년원 전력 보도 윤리 등 법·제도 논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연예 전문 변호사 등 법조인의 시각에서 사안을 전달했다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나래 씨 관련 리포트에서 동일한 자료 화면이 반복 사용되며 약 6분가량 이어진 점은 시각적으로 다소 단조롭게 느껴졌는데, 다양한 관련 자료나 그래픽·앵점 정리 화면 등을 보완하면 정보 전달력과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뉴스와이드] 美국방 "한국 같은 동맹엔 혜택...中과 세력 균형 추구"

12월 7일자 「뉴스 와이드」에서는 미 국방장관의 '모범 동맹' 발언, 미국의 대중 전략, 이재명 정부의 안보 로드맵과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미국의 대북정책, 중국 군비통제 관련 백서 등을 폭넓게 짚으며 외교·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국방비 증액에 성실히 응한 '모범 동맹'으로 지목하고,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신속히 전달한 것은 시의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코너 안에서 미 국방 장관의 발언, 미국의 대중 전략, 한반도 평화 구상, 대북정책, 중국 군비통제 백서 등 관점과 층위가 서로 다른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 해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모범 동맹" 발언은 향후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기 도입 구조 등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과 파급 효과가 보다 깊이 있게 다뤄졌다면 심층 보도의 취지가 더 잘 살아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최근에 박나래 등 연예인들의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평론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변호사 분들도 출연을 하여 다방면으로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말씀하신 박나래 영상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도 채널이어서 영상을 충분히 갖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공중파나 지상파에 출연을 하는 상황에서 앞의 방송사들은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은 데 비해서 저희는 영상도 좀 단조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연예인들 관련해서는 항상 영상이 단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美 국방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봉영식 교수가 출연하여 앵커랑 서로 대담을 해가면서 아마 하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봉영식 교수가 미국 쪽 굉장히 안보 전문가입니다. 방송에서도 해설을 잘하고 식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봉영식 교수랑 서로 질문 내용을 조정을 해가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다뤄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12월 3일 뉴스리뷰 「보안 인증 있다고 과징금 감경받은 쿠팡...실효성 의문,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는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여러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내부 권한 관리 실패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다는 현실을 명확히 짚어주며, 형식적인 인증 중심 관행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기사에서 충분히 부각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명확한 보호 기준을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분석으로, 단순 인증 취득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내부 통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자 접근권한 관리가 허술하면 어떤 인증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잘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유출 사고에서 인증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이 감경된 사례를 짚어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향후 인증 유지 요건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재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보도가 인증 제도의 개선과 기업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쿠팡 사태 이후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보안인증 부실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적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